2017. 02. 24
KIEP 전문가풀 세미나

트럼프 대통령 시대
- 미러 관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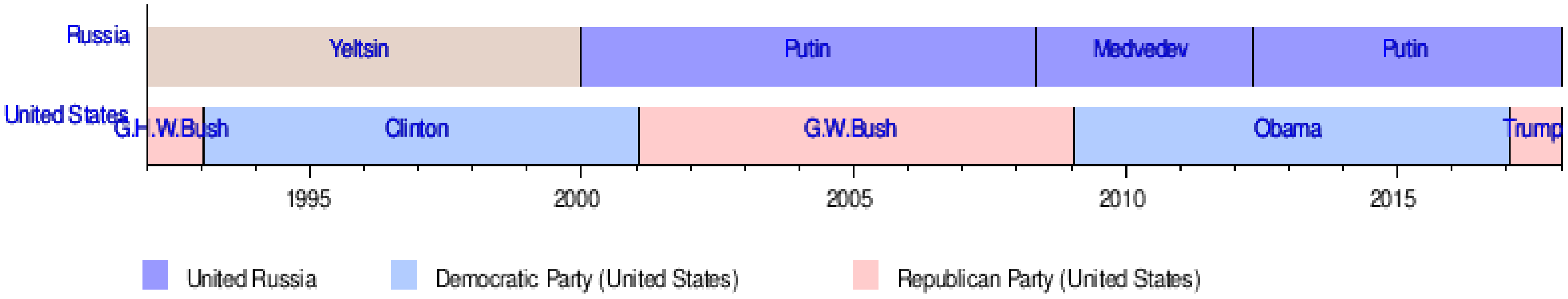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
한국외대 초빙교수

미러 관계

- 역사적:경쟁국
- 문명적: 종교, 인종, 동일 문명권
- 군사적:경쟁국/ 적대국
-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국
- 경제적:경쟁과 협력

- Russians and Americans work together in a wide range of areas, combating the threats of terrorism, nuclear arms proliferation, HIV/AIDS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and other global challenges.

미-러 관계 : 소련 해체 이후



미국내 정권 담당 세력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밀월과 대립의 요소가 혼재.

전반적으로 1991년 NATO의 신유고연방에 대한 개입 및 공습 이전 까지 밀월. 이후 악화.

* 2008년 메드베데프-오바마 Reset.// 초기엔 성공, 후반엔 실패 다시 강경한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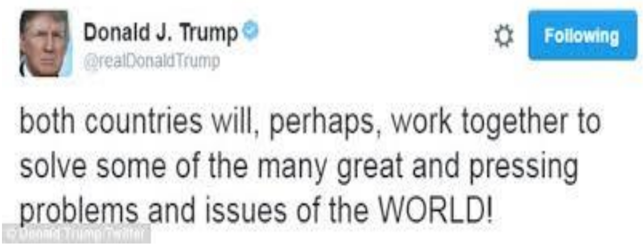
Obama 정부
성과 부분: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ART 3), tougher sanctions against Iran, cooperated on supply routes for NATO’s war in Afghanistan, worked together on President Barack Obama’s plan to secure nuclear materials arou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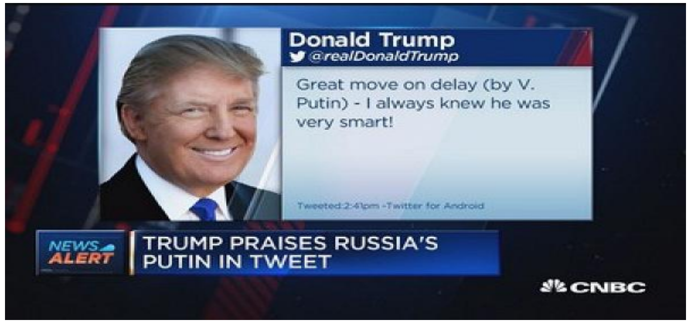
갈등 및 대립 부분-frictions over missile defense, NATO’s war in Libya, the civil war in Syria, 크림 사태 및 우크라이나 관련 sa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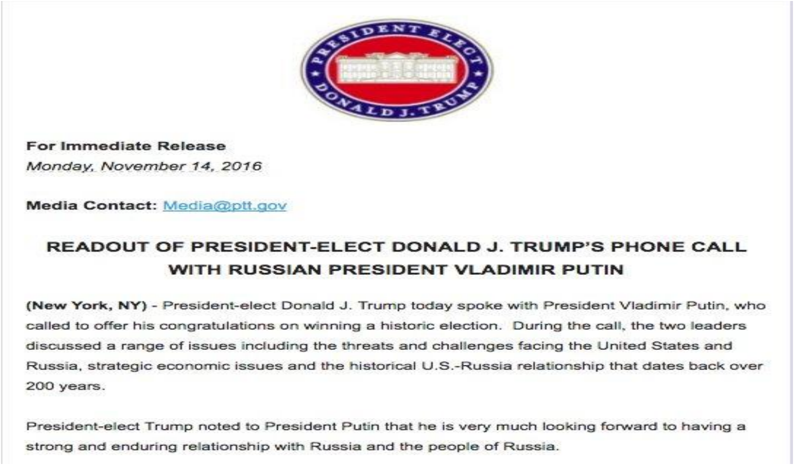
트럼프의 관계 개선 의지 vs 푸틴의 신념

- Donald Trump : 자신과 푸틴과의 개인적 관계가 미-러 관계 새 출발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인식
-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내린 대러 경제 제재 중 상당수는 대통령 명령(executive orders)으로 되어 있어 의회나 동맹국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해제가 가능.
- 문제는 러시아와 미국이 새로운 출발 혹은 정상화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이러한 이득이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라는 점을 미국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 Putin은 3가지 강력한 확신과 신념에 기초해 러시아를 운영.
- 대통령 및 크렘린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공고화.(strengthen ‘power vertical’)
-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에 대한 도전 불용 및 국제사회의 인정 확보.(Great Power status)
- 러시아를 에워싼 적대국 및 비우호국으로 부터 확실한 안전 확보. /영향력 지대 등.

트럼프의 관계 개선 관련 언급들 및 푸틴과의 통화







PRESIDENT ELECT DONALD J. TRUMP

For Immediate Release
Monday, November 14, 2016

Media Contact: Media@ptt.gov

READOUT OF PRESIDENT-ELECT DONALD J. TRUMP'S PHONE CALL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New York, NY) - President-elect Donald J. Trump today spoke with President Vladimir Putin, who called to offer his congratulations on winning a historic election. During the call, the two leaders discussed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he threats and challenges facing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strategic economic issues and the historical U.S.-Russia relationship that dates back over 200 years.

President-elect Trump noted to President Putin that he i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having a strong and enduring relationship with Russia and the people of Russia.

반대 진영의 우려와 논리

- 개선에 대한 비용이 효용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

- 개선 효용 기대 되는 분야(to the United States):

- *핵 비확산
- *반테러 문제

- 개선 효용을 능가할 비용의 분야 (to the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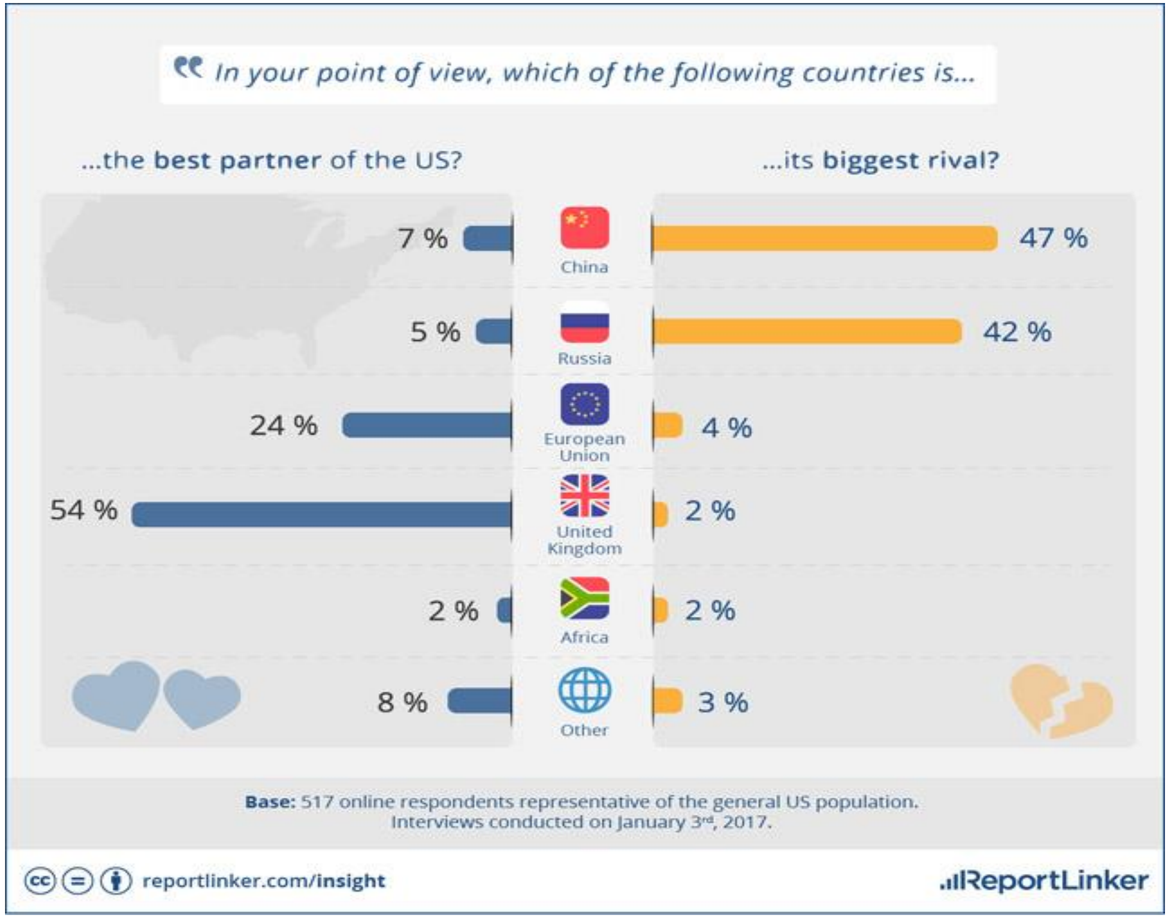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및 시리와 관련 입장과 원칙의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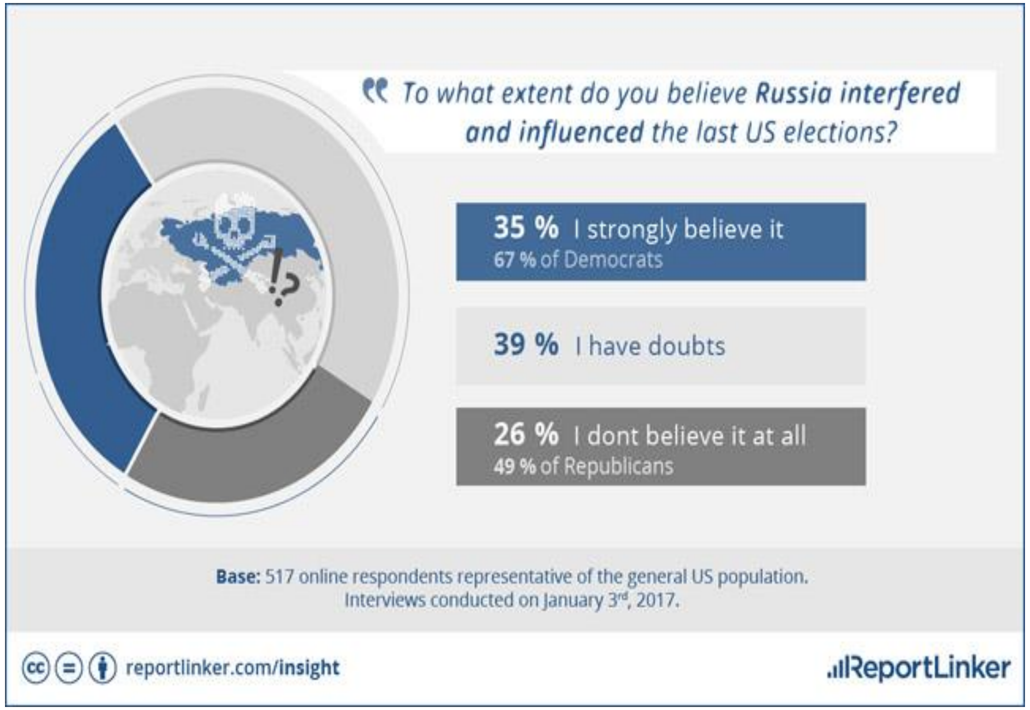
- *시리아에서 친미 반군과의 관계, 아사드에 대한 전쟁 범죄 문제 등

- *NATO와 미국 간 이견의 심화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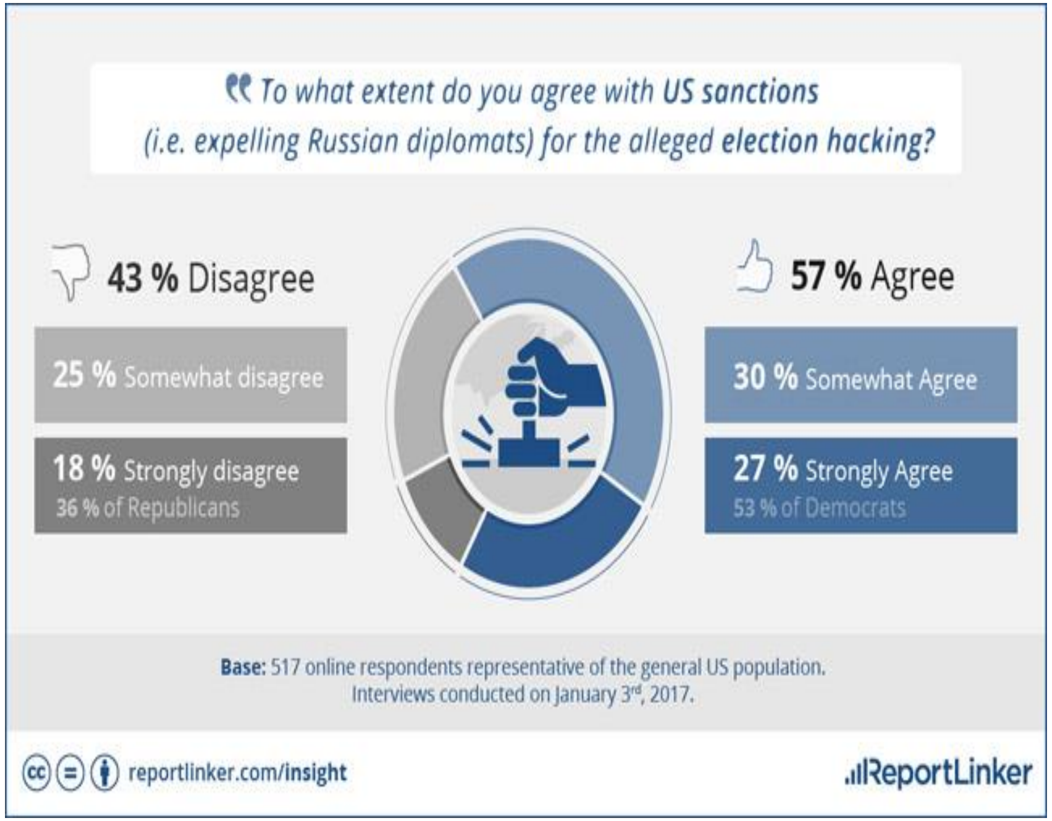
- *러시아의 영향력 지대를 인정하는 모습은 특히 발틱 3국 등 옛 소련권 미국 동맹국들의 우려를 증대시킬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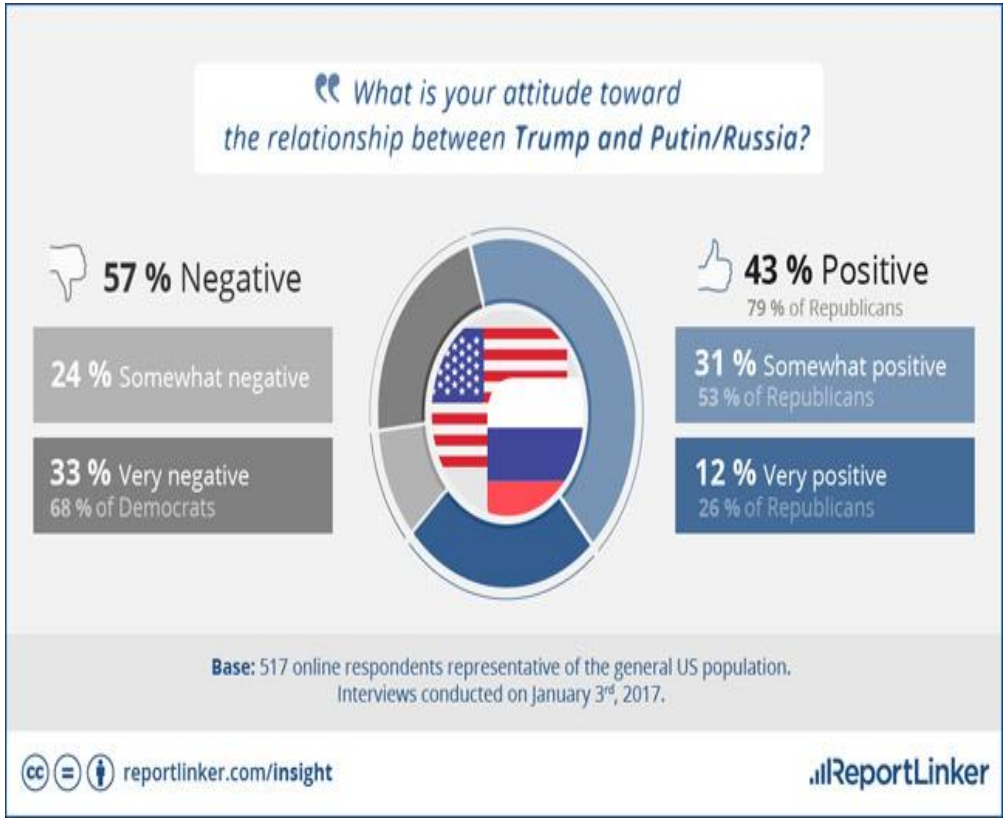
미국 국민들: 미-러 관계에 대해 Trump와 다른 견해를 견지





미국 국민들: 미-러 관계에 대해 Trump와 다른 견해를 견지





플린의 사임- 반대 여론에 대한 굴복? -플린 사임 후 트럼프의 반응

2015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투데이(RT) 창립 10주년 행사에 참석한 마이클 플린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친(親)러시아 성향의 안보 전문가인 플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주미(駐美) 러시아 대사와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고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2017년 2월 13일 전격 사퇴.

그 직후 트럼프의 반응. (2월 16일/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중)

"이 질문에 얼마나 많이 답해야 하나. 완전한 모략이다. 나는 러시아에 빚도 없고, 대출도 없고, 어떤 거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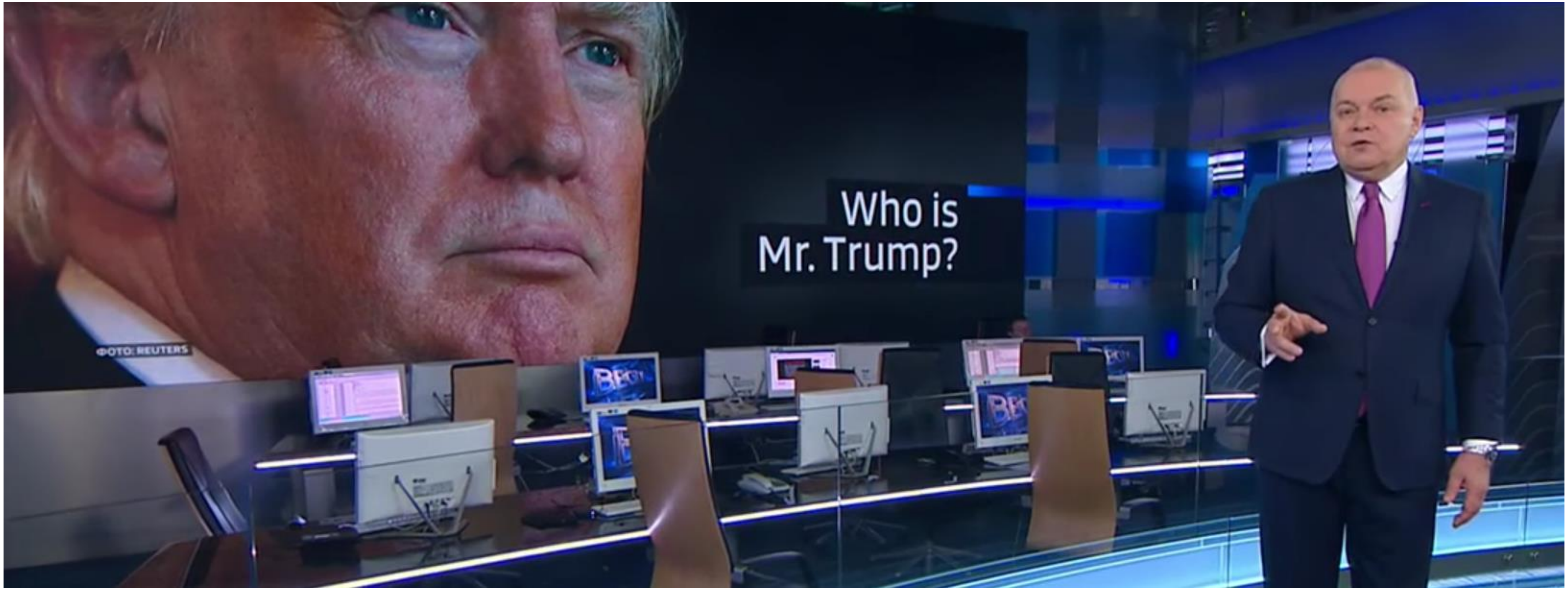
" 플린이 사임한 것은 부통령에게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플린이 러시아 대사와 제재 해제에 관련된 통화를 한 것은) "그는 자신의 일을 한 것" "만약 통화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

"(플린과 관련한) 정보 유출은 형사 범죄로,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러 정보기관의 책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언론 보도는 모두 가짜 뉴스(fake news)다. 창피한 줄 알아라. 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 (러시아 커넥션 의혹을 줄기차게 지적해 온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을 거명하면서)

미-러 관계- 解氷인가 結氷 지속인가?



2017. 02. 12 Dmitry Kiselyov,
Vesti Nedeli

미-러 관계- 解氷인가 結氷 지속인가?

- 러시아 내 여론 :양보를 통한 협상에 거부감,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강렬하지는 않아.
- Vesti Nedeli 트럼프 관련 특집 보도 하면서 러시아의 최신 레이더 기지와 시스템을 소개.
- 진행자인 Kiselyov는 이번에 구축이 완료된 레이더 시스템은 차세대 시스템으로 5 백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추적하고 즉각 반응할 수 있다고 강조.
- “러시아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당신이 국경 안에 있다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며 방어 능력 강조.
- 미국의 MD에 대한 대응 능력 및 무력화 능력 강조

With this shiny new radar system, Russia is covered VGTRK

미 대통령 선거 후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대러 관계 언급

- Rex Tillerson : Russia "poses a danger" to the U.S.
- James Mattis : naming Russia as the first of America's "principal threats."
- Nikki Haley: Russia was "trying to show its muscle" and couldn't be trusted(Trump's U.N. ambassador-designate, during her confirmation hearing)

- Senate Republicans John McCain and Lindsey Graham support even stiffer sanctions against Russia.

개선은 불가능?   매티스 VS 쇼이구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복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스스로의 기대에 대해 현실적이다"
- "우리 외교관들이 러시아와 힘을 내세워 협상하는 것을 보장한다".
- "나토가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면서 러시아로 하여금 행동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누구보다(나토 회원국들보다) 더 크게 얘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 "나토는 아직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 "우리는 지금 당장 군사적 수준에서 협력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공통의 기반과 전진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러시아에 대한 (요구의) 핵심은 그들이 우리가 모든 지구 상의 다른 나라들에 기대하는 것처럼 국제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 **세르게이 쇼이구** 러 국방장관:
- " 러시아 국방부는 미 국방부와 협력을 복원할 준비가 돼 있지만 만일 러시아와 힘을 내세워 대화를 하려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전망이 없다"
- (2월 16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논평하며)

- 2017. 2. 15, 2.16 타스, 로이터 통신 등

개선은 불가능?   스파이서 VS 페스코프

-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1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
-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무력행동을 줄이고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한 대러 제재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로 반환된 이후에나 해제될 것”.
- "대통령은 이전 정권과는 달리 이슬람국가(IS)와 테러 위협과 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도 국가·경제적 이익이 됨을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15일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 "크림 반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논의될 수가 없다. 러시아는 외국 파트너들과 자국 영토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아직 미-러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관계 구축에 관한 의지만 교환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이 마무리되고 양국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 <2017. 2월 14일 및 15일자 로이터 통신, 타스 통신 등 언론 보도 >

러시아 여론:미-러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저하

КАК ВЫ СЧИТАЕТЕ, ИЗМЕНЯТСЯ ЛИ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США ПОСЛЕ ИЗБРАНИЯ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ЕСЛИ ДА, ТО КАКИМ ОБРАЗОМ?
***** *ВОПРОСЫ КАСАЛИСЬ БАРАКА ОБАМЫ.*

	янв.09*	мар.09*	ноя.16	**янв.17**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атся	4	4	10	**7**
Несколько улучшатся	30	35	44	**39**
Останутся прежними	38	35	27	**29**
Несколько ухудшатся	6	6	2	**8**
Значительно ухудшатся	1	1	<1	**2**
Затруднились ответить	22	20	17	**15**

Levada Center.

LEGVOLD의 견해

- LEGVOLD: I mean, I think anybody who follows and is informed about events knows the memo to the new president.
- Compel Kiev to implement Minsk. It's not Russia that's blockading and thwarting Minsk. It's the Poroshenko government. Get this done or think of something else.
- Restore the agreement with Russia in Syria before the Department of Defense attack those Syrian forces, 48 hours before it was supposed to go into implementation;
- and, a little more difficult, demilitarize NATO expansion back to Berlin. We promised that NATO—well, people laugh, but we promised the Russians that, yeah, we've broken our first promise.
- We were going to expand NATO, but there would be no forward-based Western troops there. They're now right on Russia's border. That's a provocation. Demilitarize. That doesn't mean in NATO, expel the members, but demilitarize it. We would be living in a much safer and more cooperative world.
- But we're not going to get a president with the will or the understanding to do anything like this. Maybe one.
- CFR 2016. 10.21.

존 볼튼의 견해

- **National Security Adviser 후보,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명. 트럼프에 외교안보 관련 영향력 보유**

- **Trump's New Start With Russia May Prove Better Than Obama's**
- **The new president's reported disdain for his predecessor's arms deal is an encouraging sign./ 이란 핵협상, START 3 등을 의미.**

- "Washington must resist Russian penetration into the Middle East with the help of the military and political methods, in line with which Syria has used as a lever."
-
- John Bolton несомненно, должен признать, что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а не личная химия лежат в основ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еликих держав", - пишет Болтон.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должен усилить санкции, успокоить союзников по НАТО, "а потом уже пить кофе с Владом", подытоживает политик. "Переговоры нужно вести только с позиции силы".

- The Wall Street Journal
- Feb. 13, 2017

토머스 그레이험 (Thomas Graham)의 견해

- Thomas Graham : 컨설팅 회사인 Kissinger Associates의 대표(managing director)
- George W. Bush 행정부 때 러시아 문제 보좌관. 외교관 출신. 트럼프의 초대 주러 대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

- "Simply increasing sanctions won't resolve the Ukraine crisis. Secondly, it's not in our strategic interest if the Russian economy is excessively weakened and Russia is driven toward China,"
- "We need to look at Russia in a global context."
- "Normalization doesn't mean cooperation but reestablishing normal diplomatic channels. It's not a return to partnership,"
- *"Russia should be perceiv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any new global equilibrium, not primarily a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Kissinger, 2017. Feb)
- " Russia can help balance Chinese power in Central Asia and the Far East. Although Russia's capabilities are unsustainable without an economic upswing, the country will be a fixture in world affairs for the coming decades."
- "It has significant military capability, as we've seen in the cyber sphere,"
- "It's a major power and we have to deal with it. It will be part of a stable world order."

- Graham said it was high time for a new Russia policy.
- "It's not the Cold War and it's not the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immediate post-Cold War period. Neither framework is adequate because the global context is different,"
- "The world order is shifting. We need to come to a new equilibrium."

- January 18, 2017 NPR

트럼프 행정부 등장 후 첫번째 미-러 외무장관 회담 : '실용적', '실질적' 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강조

라브로프 러 외무: (기자들과의 인터뷰)

" 실용적이고 실무적이며 생산적 회담이었다"
" 양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 원칙적 수준에서 논의한 여러 방향을 따라 어떻게 나아 갈지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제시했다 "
" 틸러슨 장관이 미-러 관계 복원에 대한 미국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
" 그러나 양국 간 이견을 단시간에 극복할 수는 없는 것"
양국은 또 시리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관한 두 나라의 관심을 확인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서)

"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 협력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고려하겠지만, 서로 의견이 어긋나는 분야에서는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할 것" "새로운 공감대를 찾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지키고 우크라이나에서의 폭력 사태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WP신문은 이를 틸러슨 장관이 우크라이나 동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주둔군의 철군을 사실상 주문한 것으로 해석했다.

2017. 2월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회동 후 내놓은 언급들.

라브로프 장관의 또 다른 언급 (2017/02/18)
"서로 존중하고 세계 안정을 위한 공동의 책무를 인식하는 가운데 미국과 실용적인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트럼프 시대- 리셋 혹은 정상화?

사례 및 분야 1>

군사협력 : 오바마 시대 미 국방장관들과 러시아 군부와의 관계

오바마 재임 기간 국방장관은 로버트 게이츠, 레온 파네타, 척 헤이글, 애슈턴 카터.

모스크바를 방문한 국방장관은 첫번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의 2011년이 유일.

-게이츠 시절 주요 이슈는 미국의 동유럽에 대한 MD 배치.

-이후 미-러 군사적 갈등 및 전 방위적 갈등이 확산: 크림,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

트럼프는 과연 어떤 정책을 추구할까?

- 군사 협력 및 유대 관계 정상화?
- 혹은 대립의 지속?

트럼프와 푸틴 정상회담이 관건

- 드미트리 페스코프(크렘린 대변인)
-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계획이나 검토되는 일정이 없다“
- "올해 7월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고 그곳에서 두 정상이 어떻게든 만나게 될 것이다"
- "이보다 더 이른 회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게 없다"
- 2017/02/13 인테르팍스 통신
- 다른 가능성:
- 슬로베니아- 부인 멜라니아의 모국. (EU, NATO 회원국, 러시아와도 우호국)
- 핀란드-북극 이사회 의장국 (2017-2019)-핀란드 총리 Juha Sipila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이 2017년 상반기 북극 이사회 정상회의 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

전망

- 미-러 관계 증진의 신호는 중동에서 시작될 가능성.
- -특히 시리아(ISIS) 문제 등.
- - 또 다른 분야는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 이슈, 핵무기 및 전략무기 감축, 유럽 안보 문제 등.
- -경제 제재 해제 문제 등은 즉각적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어.
- (일몰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 "Wouldn't it be nice if we got along with Russia?" Trump said repeatedly on the campaign trail.
- "Wouldn't it be nice if we got together with Russia and knocked the hell out of ISIS?“
-

전망

- “강대국 간 관계는 단순히 지도자의 정책변화에 좌우되지 않을 구조적 대립과 완충의 요소가 혼재돼 있다. 국내 정치`경제 구조의 경직성 또한 방향전환을 더디게 한다. 약소국의 이해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정적이다.” (김석환/ 동아일보 이슈&진단. 2017. 02 02.)

- 이익의 교환이 가능한 분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을 얼마나 많이 창안해 낼 수 있느냐에 향후 미-러 관계 개선의 성패가 달려 있다.

- 예를 들어 가장 쉬운 협력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중동에서도 미-러 협력은 양자간 목표의 균형을 찾아내는 데 달려있다.

- 시리아에서 미국은 복잡한 목표를, 러시아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 Russia: one very simple objective, which is to help Assad
- America: want to get rid of Assad, stop ISIS, work with the Kurds, keep the Turks happy etc.

-